

고등 『문학』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 연구

김 주 환(안동대 조교수)*

《 요 약 》

이 연구는 2009 고등 『문학』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12년 한 해 동안 동일한 『문학』 교과서를 사용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386명과 6개 학교 학생 256명이다.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문학사적 평가가 높은 작품이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을 선호하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중가요나 만화, 대중소설, 연애시와 같은 작품들을 선호한다. 둘째, 교사들은 현대시나 고전시가와 같은 서정 장르를 선호하지만, 학생들은 소설, 희곡·시나리오와 같은 서사 장르를 선호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작품에 흥미를 나타내었으며 어휘나 표현이 낯선 작품들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교사와 학생들은 흥미도가 높은 작품을 교과서에 신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즉, 흥미도와 적절성의 관련은 밀접하지만 흥미도와 난도의 관련성은 밀접하지 않았다. 다섯째, 실제 수업에서 교사들은 문학사적 평가가 높은 작품들을 주로 가르치고 최근작이나 외국 작품은 잘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교과서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작품 선정에서 난도뿐만 아니라 흥미도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와 학생들의 작품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학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 중에서 학생들의 흥미가 높은 작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문학 교과서, 교과서 텍스트, 교과서 제재, 교사 반응, 학생 반응

I. 서론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개정된 2007, 2009 개정 문학 교육과정은 그동안의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kjh21@anu.ac.kr

문학 교육에 대한 논의를 반영해서 학생 중심, 활동 중심으로 변화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문학』에는 문학사적 평가를 받은 작품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싣고 있다. 이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사용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문학 교육, 나아가 국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할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2011년에 국어과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고,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되어 내년에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라고 한다.¹⁾

이미 2009 교육과정(2011년 고시)에 따른 교과서가 나와 있는 마당에 시효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평가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새롭게 만드는 데 힘썼을 뿐 정작 그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국어과 교과서가 검정제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교과서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과서 연구는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문학』 교과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어떤 장르의 작품을 선정했는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탐구한 텍스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강석, 2011; 박기범, 2012; 김용기, 2012). 최근에는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들(김현수, 2009, 2012)도 있지만 교과서 텍스트 전체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였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독자인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 정책의 방향에 따라 수시로 개편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에 적용된 2009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들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학』 교과서는 검정제로 개발되어 12종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 수록 작품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교과서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 조사이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를 공부한 교사와 학생들을 널리 표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검정 교과서 중에서 현장 채택률이 가장 높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한 해 동안 동일한 『문학』 교과서를 사용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386명과 6개 학교 256명의 학생들을 표집하여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흥미도, 난도, 적절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그리고 흥미로운 문학 수업을 준비하려는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2009년에는 총론과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교육과정이 개편되었고 2011년에는 국민공통교육과정과 선택과목 전체가 개편되었다. 이 두 교육과정 모두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교육과정(2011년 고시)'으로 표시하였다.

Ⅱ. 『문학』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선행 연구

2009 『문학』 교과서는 현장에 적용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성과 또한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박기범(2012)의 연구는 현대 소설 제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09 『문학』 교과서의 전반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박기범(2012, p. 212)은 『문학』 교과서에 새로 수록된 작품이 전체의 42%인 147편이나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최근작도 다수 수록되었고, 외국 문학 작품의 비중도 이전 7차 교과서보다 높아졌으며, 제3세계 국가의 문학으로 수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분석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2009 『문학』 교과서의 텍스트가 이전 시기보다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9 문학 교육과정은 『문학』 과목의 성격을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을 심화·발전시킨 과목이라고 규정하고 학습자의 활동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과 달리 교과서 수록 작품 선정의 기준을 ‘문학사적 기준과 비평적 안목에 비추어 타당하고 전이성 높은 작품’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관심 및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작품’과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다양한 하위 범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로 확대하였다. 이런 변화로 인해 2009 문학 교과서는 어느 때보다 학습자의 선호 경향과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수용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최근작을 많이 수록한 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개발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적 현상을 중시하여 작품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인지도가 떨어지면 교육적 효용 가치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최근작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고전 작품의 비중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작의 비중 증가 현상을 좋게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박기범, 2012, p. 214).

『문학』 교과서 텍스트 선정에서는 ‘문학사적 기준과 비평적 안목’을 강조하는 관점과 ‘학습자의 관심과 생활 경험’을 강조하는 관점이 서로 충돌하기 쉽다. 이 두 가지 관점은 그대로 문학 교수와 학습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경우 대체로 ‘문학사적 기준과 비평적 안목’을 갖춘 작품을 선호하겠지만 학생들은 ‘학습자의 관심과 생활 경험’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교과서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텍스트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의 개념을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을 매개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교과서의 텍스트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논의는 주로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나 장르 유형에 대한 탐색 등 텍스트 분석에 치중해서 진행되어 왔다. 교과서에 어떤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가

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록된 텍스트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문학 교수·학습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텍스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논의는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이순영(2011a)의 논의이다. 이순영(2011a, p. 95)은 464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독자들의 설문과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텍스트 난도와 텍스트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초·중·고등학교 독자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글’의 핵심 요인은 ‘독자 자신의 흥미와 재미’임을 밝혔다. 즉, 관심이 있으면 어려운 글이라도 적극적으로 읽게 되지만 관심이 없으면 독서 동기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독해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어휘가 어렵거나 배경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텍스트, 작문의 질이 떨어지는 텍스트도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연구는 텍스트 선정에 흥미, 배경지식, 장르 선호, 독서 목적 등과 같은 ‘독자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현수(2009, pp. 386-391)는 7차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현대시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텍스트의 내용과 학습자의 흥미 간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은 새롭거나 재미있는 내용 혹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반면 기성세대의 시각이 질게 배어 있는 고리타분하거나 사변적인 내용의 작품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 교과서에 실린 여덟 작품에 대해 흥미도와 난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은 쉽게 이해되는 작품일수록 흥미도가 높아지고, 어려운 작품일수록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현대시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흥미도나 난도와 관련되는 텍스트의 특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선희(2004, pp. 409-410)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 텍스트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반응 양상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첫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좋아한다. 둘째, 자신의 경험과 밀접하지 않은 내용의 시에서도 새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상상의 나래를 펴며 시적 체험을 한다. 셋째, 장면을 상상하기 쉬운 시를 선호한다. 넷째, 시의 시대적 배경이 자신들의 삶과 상이한 경우에도 인간 보편의 정서를 주제로 하여 시적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텍스트의 문맥에 어려움이 없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다섯째, 재미있는 표현이나 생각이 담기지 않은 서경적인 시, 어려운 비유로 빚어진 시에 대해서는 쉽게 장면이나 분위기를 떠올리지 못하여 시적 감동을 느끼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시 텍스트에 대한 반응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연구도 최근에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순영(2011b)은 교사들의 텍스트 유형별 선호와 인식을 연구하였다. 국어과 교사 90명을 포

함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사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교사들의 텍스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독서 목적에 대한 조사에서 교사들은 자신이나 학생, 사회인 모두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독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초·중·고등학교, 국어과와 타교과 교사 모두가 자신의 독서 목적과 사회인, 학생들의 독서의 독서 목적을 모두 개인의 인격 도야나 훈육, 교양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텍스트 유형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문학 텍스트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이야기가 가장 쉽고 시가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며, 구체적으로는 이야기>수필>소설>시의 순서로 읽기 쉽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게 읽는 텍스트의 종류나 분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동화나 무협지/판타지 소설 같은 텍스트를 들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장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들은 대부분 서사성이 강한 작품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현진, 안찬원(2012)은 교과서에 수록된 정보 텍스트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5, 6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과 해당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정보 텍스트보다 문예 텍스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텍스트에 대한 선호와 인식은 단순히 텍스트의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의 텍스트 선호는 텍스트의 유형뿐 아니라 텍스트에 포함된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 학생들은 대체로 서사성이 강한 작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사고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텍스트의 흥미도와 난도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는 제재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거나 특정한 몇몇 텍스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텍스트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을 조사했다. 한 해 동안 『문학』 교과서를 사용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수록 작품의 흥미도, 난도, 적절성을 조사하였다. 1년 동안 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반응 조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등학교 문학 교수·학습의 실제성을 반영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학』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종합적인 평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교과서 텍스트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2009 개정 문학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어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는 『문학Ⅰ』과 『문학Ⅱ』 각각 13책이다. 그 중에서 『문학Ⅰ』과 『문학Ⅱ』 두 권 모두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는 모두 12종이다. 교과서 수록 작품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교과서를 사용한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채택률(14.1%)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C출판사의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C출판사의 『문학Ⅰ』, 『문학Ⅱ』 교과서는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답게 2009 개정 문학 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문학Ⅰ』은 갈래별로 기술하였고 『문학Ⅱ』는 문학사를 중심으로 기술했다는 점이다. C출판사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가 이러한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제7차 『문학』 교과서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2009 개정 『문학』 교과서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문학Ⅰ』과 『문학Ⅱ』 교과서 학습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2013년 4월에 걸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국 6개 고등학교 총 256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목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일반계고 등 다양한 학교들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표집 대상으로 삼았다. 표집 대상 학교는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 등 지역을 고려하여 6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학교별로 1-2개 반의 학생들만 선정하여 학교별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했다. 학생들의 성별, 진로 계열별,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 학생들의 분포

남		여		계
115		141		256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기타	
116	112	22	6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94	121	41		

교과서 검정 제도 하에서 교과서 채택은 전적으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의 권한도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학생들의 반응만큼이나 중요하다.

교사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C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진행했다. 이 연구는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아니라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많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참여 인원은 남교사 216명, 여교사 170명, 총 386명이다. 교사들의 경력별, 전공별, 학교 특성별, 지역별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 교사들의 분포

남		여		계
216		170		386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년 이상	
73	83	127	103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25	37	317	6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부전공	기타	
117	255	5	9	
서울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53	97	113	82	41

조사 내용은 첫째, 문학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문학 공부를 하는 이유와 문학 공부가 사회생활에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문학 교과서의 만족도와 활용 정도이다. 문학 교과서에 대한 만족 여부, 교과서의 활용 정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작품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장르나 교과서에 수록하기를 바라는 작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선택형 문항으로 제시하여 빈도 분석 및 집단별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에 대한 평가 반응이다. 『문학Ⅰ』, 『문학Ⅱ』 본문에 사용된 작품 목록을 제시하고 평가 반응을 흥미도, 난도, 적절성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흥미도는 작품에 대한 교사와 학생 자신의 흥미 정도를 나타내고, 난도는 교사와 학생들이 느끼는 작품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적절성은 해당 작품이 교수·학습의 자료인 교과서에 실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 반응이다. 또한 자유 응답 질문으로 ‘가장 흥미있는 작품’, ‘가장 재미없는 작품’, ‘가장 어려운 작품’, ‘어렵지만 수업하면서 흥미로웠던 작품’ 각각 두 가지를 쓰도록 했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 텍스트는 『문학Ⅰ』 32편, 『문학Ⅱ』 40편이다. 그리고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도록 했다. 5점 척도로 응답한 반응은 평균값을 산출하여 서로 비교했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유 응답 자료는 다중 분석을 실시하여 상위 10 작품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 교사나 학생들의 집단 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일부 문항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들만 해당 문항의 기술에 반영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문학 공부의 중요성

문학 공부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했다. 이 질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교사들이 문학을 가르치는 이유

	빈도수	백분율
① 문학적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190	51.35
② 문학적 소양을 쌓고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	151	40.81
③ 민족의 언어 문화적 전통을 전수하기 위해서	7	1.89
④ 효과적인 표현·이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22	5.95
⑤ 기타	0	0.00
계	370	100.0

〈표 4〉 학생들이 문학 공부를 하는 이유

	빈도수	백분율
① 수능 언어영역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118	46.1
② 내신 성적을 얻기에 유리한 과목이기 때문에	62	24.2
③ 많은 문학 작품을 읽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	29	11.3
④ 문학적 지식을 쌓고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24	9.4
⑤ 기타	23	9.0
계	256	100.0

문학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문학적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교사들이 51.35%, “문학적 소양을 쌓고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가 40.81%, “효과

적인 표현·이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가 5.95%, “민족의 언어 문화적 전통을 전수하기 위해서”가 1.89%였다. 이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문학적 상상력 향상’과 ‘인격 함양’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 문학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문학 작품을 읽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 11.3%, “문학적 지식을 쌓고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9.4%로 응답한 반면에 내신이나 수능 시험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70.3%였다. 이 문항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도 뚜렷이 드러났다. 내신 성적 때문에 문학을 공부한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수(36.9%)가 남학생(8.7%)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교양을 쌓기 위해 공부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의 응답자 수(19.1%)가 여학생(5.0%)보다 높았다(유의확률 .0, 분할계수 .348). 이것을 통해 볼 때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문학 공부가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표 5〉 교사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문학 공부의 필요성

	교사		학생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① 매우 필요할 것이다.	270	73.60	40	15.6
② 조금 필요할 것이다.	88	24.00	150	58.6
③ 보통이다.	8	2.20	40	15.6
④ 별로 필요 없을 것이다.	1	0.30	0	0
⑤ 전혀 필요 없을 것이다.	0	0.00	26	10.2
계	367	100.0	256	100.0

문학 공부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73.6%의 교사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4%의 교사들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학생들의 경우 “매우 필요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15.6%, “조금 필요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8.6%였다. 학생들의 응답과 비교해서 보면 교사들이 문학 공부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전공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문학 공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학 공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 문학 공부를 하는 이유를 대부분 시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문학 공부의 실제적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을 위한 문학 공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문학의 가치를 느끼고 문학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2. 『문학』 교과서의 만족도와 사용 실태

『문학』 교과서의 만족도와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학 교과서에 만족하십니까?”, “문학 교과서의 작품을 얼마나 공부하였습니까?”, “문학 교과서의 작품을 얼마나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문학』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

	교사		학생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① 매우 만족함.	21	5.70	11	4.3
② 만족함	218	58.90	136	53.1
③ 보통임	109	29.50	93	36.3
④ 만족하지 않음	21	5.70	0	0
⑤ 매우 만족하지 않음	1	0.30	16	6.3
계	370	100.0	256	100.0

교과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58.9%가 “만족함”, 29.5%가 “보통임”이라는 응답을 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에 그친 것으로 보아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만족도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도 53.1%가 “만족함”, 36.3%가 “보통임”이라고 응답하여 교사들과 비슷하다. 자유응답 질문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교과서의 제재가 흥미롭고 학습활동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제재와 학습활동이 교사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문학』 교과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교사		학생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① 작품이 어려워서	7	3.59	15	20.83
② 작품이 재미없어서	56	28.72	16	22.22
③ 교육 내용이 어려워서	5	2.56	1	1.38
④ 교육 내용이 재미없어서	35	17.95	8	11.11
⑤ 학습 활동이 어려워서	10	5.13	3	4.16
⑥ 학습 활동이 재미없어서	39	20.00	6	8.33
⑦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38	19.49	10	13.88

	교사		학생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⑧ 삽화나 편집이 맘에 안 들어서	5	2.56	2	2.77
⑨ 기타	0	0.00	11	15.27
계	195	100	61	99.95

현재의 문학 교과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작품이 재미없어서” 28.72%, “학습 활동이 재미없어서” 20%,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19.49%, “교육 내용이 재미없어서” 17.95%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작품이 재미없어서” 22.22%, “작품이 어려워서” 20.83%,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13.88%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 교과서 텍스트의 흥미도가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 텍스트의 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 반해 교사들은 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교사들은 학습활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 반해 학생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모두 학습량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표 8〉 학교에서의 『문학』 교과서 사용 실태

	교사		학생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① 본문 제재를 빠짐없이 학습	66	18.20	34	13.3
② 본문 제재 중 일부를 제외하고 학습	246	67.80	177	69.1
③ 본문 제재의 일부만을 학습	45	12.40	26	10.2
④ 학교에서 만든 교재로 학습함	6	1.70	16	6.3
⑤ 기타	22	6.06	3	1.1
계	363	100.0	256	100.0

〈표 9〉 교사와 학생들이 바라는 『문학』 교과서 활용 정도

	교사		학생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① 본문 제재를 빠짐없이 학습	39	10.70	29	11.3
② 본문 제재 중 일부를 제외하고 학습	214	58.80	100	39.1
③ 본문 제재의 일부만을 학습	33	9.10	25	9.8
④ 교과서보다는 유명한 작품 위주로	9	2.50	42	16.4
⑤ 12종 교과서 작품 전체 학습	15	4.10	13	5.1
⑥ 교과서를 벗어나 다양한 활동 위주로	54	14.80	36	14.1
⑦ 기타	14	3.85	11	4.2
계	364	100.0	256	100.0

문학 교과서 사용 실태를 보면 교사와 학생들의 응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교실 수업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면 학교에서는 문학 교과서의 작품을 모두 다 가르치기 보다는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본문 제재를 빠짐없이 지도한다는 응답이 남교사 23.3%, 여교사 11.4%로 나타났다(유의확률 .01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사용 희망에서도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교과서를 벗어나 다양한 활동 위주로” 하겠다는 응답이 0%에서 14.8%로 늘었을 뿐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벗어나 다양한 활동 위주로”가 14.1%, “교과서보다는 유명한 작품 위주로”가 16.4%로 교과서를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30%가 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면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선호하지만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여교사보다는 남교사들이 더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사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장르와 작품

고등학생들이 어떤 작품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문학 교과서의 다음 갈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과 “여러분은 문학 교과서에 어떤 작품이 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교사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장르

	교사		학생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① 현대시	211	57.18	34	13.3
② 현대소설	108	29.27	115	44.9
③ 현대수필	5	1.36	27	10.5
④ 현대희곡, 시나리오	2	0.54	49	19.1
⑤ 고전시가	38	10.30	6	2.3
⑥ 고전소설	3	0.81	12	4.7
⑦ 고전산문	2	0.54	1	0.4
⑧ 탈춤이나 인형극 등	0	0.00	5	2.0
⑨ 기타	0	0.00	7	2.8
계	369	100.0	256	100.0

장르 선호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현대시(57.18%), 현대소설(29.27%), 고전

시가(10.30%)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 세 장르를 제외한 다른 장르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교사들의 장르 선호도는 시>소설>수필/산문>희곡·시나리오 순으로 문학성이 강하다고 하는 장르의 순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전공별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출신 교사들의 선호도를 보면 시 61.5%, 소설 22.9%, 고전시가 12.8%인데 반해 사범대 국어교육과 출신 교사들의 선호도는 시 56.2%, 소설 31.7%, 고전시가 8.8%로 나타나 인문대 출신의 교사들이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000).

학생들의 장르 선호도는 교사들과 달리 현대소설(44.9%)>현대희곡·시나리오(19.1%)>현대시(13.3%)>현대수필(10.5%) 순으로 서사 장르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교사들과 달리 학생들은 현대희곡·시나리오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서사 장르에 대한 확실한 선호도를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타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지는 않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에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이외의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보다 교사들의 장르 선호도가 훨씬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교사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작품

	교사		학생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① 대중가요나 만화와 같이 가볍고 재미있는 작품들	3	0.81	54	21.1
②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대중소설이나 연애시들	21	5.69	57	22.3
③ 동서양에서 유명한 고전적인 작품들	35	9.49	24	9.4
④ 문학사에서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은 작품들	140	37.94	50	19.5
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알 수 있는 작품들	29	7.86	13	5.1
⑥ 청소년들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	135	36.59	38	14.8
⑦ 문학에 대한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작품들	6	1.63	14	5.5
⑧ 기타	0	0.00	6	2.3
	369	100.0	256	100.0

교과서에 실리기를 바라는 작품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문학사에서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은 작품들” 37.94%, “청소년들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 36.59%, “동서양에서 유명한 고전적인 작품들” 9.49%,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알 수 있는 작품들” 7.86%,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대중소설이나 연애시들” 5.69%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가볍고 대중적인 작품보다는 문학적 가치나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응답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대중소

설이나 연애시들” 22.3%, “대중가요나 만화와 같이 가볍고 재미있는 작품들” 21.1%로 가볍고 대중적인 작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문학사에서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은 작품들” 19.5%, “청소년들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 14.8%, “동서양에서 유명한 고전적인 작품들” 9.4%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즉,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선호하는 반면에 교사들은 문학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에 선호도가 편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4.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

가. 『문학 I』의 흥미도, 난도, 적절성

『문학 I』에 수록된 작품에 대해 흥미도, 난도, 적절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흥미도는 제재에 대한 흥미의 정도를, 난도는 제재에 대한 어려운 정도를, 적절성은 교과서에 신기에 적절한 정도를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배우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도록 했다.

〈표 12〉『문학 I』 수록 작품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 조사 결과

번호	교사 반응				학생 반응			
	작품	흥미도	난도	적절성	작품	흥미도	난도	적절성
1	엄마를 부탁해	4.18	3.28	3.77	엄마를 부탁해	4.04	3.04	3.82
2	자전거 도둑	4.1	3.4	3.91	자전거 도둑	4	2.74	3.65
3	괴물	3.86	2.93	3.33	소년 시절의 맛	3.84	2.32	3.4
4	피비우스의 띠	3.85	3.92	4.01	괴물	3.83	2.52	3.16
5	그들이 사는 세상	3.74	3.05	3.35	그들이 사는 세상	3.75	2.63	3.27
6	삼포가는 길	3.74	3.39	3.95	삼포가는 길	3.71	2.94	3.62
7	치숙	3.62	3.42	3.8	종로 5가	3.69	3.06	3.64
8	모래톱 이야기	3.61	3.35	3.83	홀린 사람	3.69	3.14	3.67
9	종로 5가	3.59	3.32	3.6	변신	3.67	3.02	3.34
10	홀린 사람	3.55	3.33	3.48	피비우스의 띠	3.6	3.35	3.54
11	변신	3.51	3.60	3.38	모래톱 이야기	3.53	3	3.44
12	소년 시절의 맛	3.44	2.95	3.25	단단한 고요	3.48	2.86	3.35
13	채봉감별곡	3.4	3.32	3.49	채봉감별곡	3.39	3.06	3.59
14	울음이 타는 강	3.37	3.62	3.64	모닥불	3.36	2.83	3.52
15	베니스의 상인	3.33	3.08	3.06	치숙	3.35	3.27	3.45
16	한티재 하늘	3.32	3.13	3.28	하회별신굿탈놀이	3.29	2.85	3.25

번호	교사 반응				학생 반응			
	작품	흥미도	난도	적절성	작품	흥미도	난도	적절성
17	별	3.31	2.95	3.29	어진사람과...	3.26	3.02	3.23
18	단단한 고요	3.29	3.18	3.27	밥	3.25	2.91	3.19
19	꽃피는 시절	3.29	3.19	3.27	한티재 하늘	3.24	3.05	3.26
20	모닥불	3.28	2.97	3.42	엘버트로스	3.17	2.93	3.21
21	밥	3.28	3.09	3.18	베니스의 상인	3.17	2.75	3
22	어진사람과...	3.27	2.98	3.15	별	3.13	3.05	3.43
23	알 수 없어요	3.25	3.52	3.66	토막	3.11	3.23	3.18
24	정읍사	3.24	3.18	3.74	꽃피는 시절	3.1	3.28	3.4
25	하회별신굿탈놀이	3.23	3.33	3.44	알 수 없어요	3.09	3.46	3.41
26	규원가	3.22	3.76	3.71	규원가	3.08	3.49	3.44
27	가능성의 나무	3.22	3.03	3.03	가능성의 나무	3.05	3.18	3.08
28	토막	3.11	3.24	3.42	두꺼비 연적을...	3.03	2.96	3.12
29	두꺼비 연적을...	3.09	2.88	3.13	울음이 타는 강	3.01	3.52	3.36
30	엘버트로스	2.93	2.96	2.79	백자부	2.96	3.03	3.22
31	산성일기	2.85	3.44	3.19	정읍사	2.94	3.31	3.38
32	백자부	2.75	3.08	2.93	산성일기	2.83	3.48	3.21

흥미도: 『문학 I』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교사들이 가장 흥미도를 높게 평가한 상위 5편은 ‘엄마를 부탁해’, ‘자전거 도둑’, ‘괴물’, ‘뫼비우스의 띠’, ‘그들이 사는 세상’이다. ‘뫼비우스의 띠’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응답과 동일하다. ‘뫼비우스의 띠’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작품의 흥미도 반응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사들이 가장 흥미도를 낮게 평가한 5편의 작품은 ‘백자부’, ‘산성일기’, ‘엘버트로스’,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토막’이다. 이 작품들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도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학생들이 흥미도를 낮게 평가한 ‘울음이 타는 강’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아마도 현대시에 대한 교사들의 장르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이 반응은 대체로 일치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흥미도를 높게 평가한 작품들은 대체로 현대소설과 영화·드라마에 속하는 것들이고 흥미도를 낮게 평가한 작품에는 고전 작품들이 많다. 장르 선호도 조사에서도 고전 장르들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선호도는 모두 낮은 편이었는데 실제 작품의 흥미도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전 작품 중에서도 ‘채봉감별곡’ 같은 작품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비교적 높은 흥미도를 보이고 있다.

난도: 난도가 가장 높은 5편의 작품은 교사들의 경우 ‘뫼비우스의 띠’, ‘규원가’, ‘울음이 타는

강, '변신', '알 수 없어요.'이다. 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도 교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변신'의 경우에는 교사들은 난도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에 학생들은 높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변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와 관련이 깊다. 대체로 학생들은 흥미도가 높은 작품에 대해서는 난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난도가 가장 낮은 5편의 작품은 교사들의 경우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괴물', '소년 시절의 맛', '별', '엘버트로스'이다. '괴물'의 경우에는 흥미도가 높은 작품이지만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와 '엘버트로스'의 경우 흥미도가 낮은 작품들이다. 이런 결과로 보아 교사들의 경우에는 흥미도와 난도의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도가 낮은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교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자전거 도둑'의 경우에는 교사들은 난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했으나 학생들은 난도가 낮은 작품을 평가했다. 이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난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도 대체로 비슷하다. 상징성이 높은 시나 소설 작품, 그리고 어휘나 내용이 낯선 고전 작품들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난도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현대적인 영화나 드라마, 소설 작품들에 대해서는 난도가 낮다는 반응을 보였다. 난도에 관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차이도 확인된다. 학생들의 경우 흥미도가 높은 작품에 대해서는 난도를 낮게 평가하고 흥미도가 낮은 작품은 난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 결과(김현수, 2009)에서도 난도가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학생들의 경우 흥미도와 난도 간의 관련성이 밀접하지만 교사들의 경우에는 흥미도와 난도 간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성: 교사들이 가장 적절성을 높게 평가한 5편의 작품은 '뫼비우스의 띠', '삼포 가는 길', '자전거 도둑', '모래톱 이야기', '치숙' 등이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엄마를 부탁해', '홀린 사람', '자전거 도둑', '종로 5가', '삼포 가는 길'을 가장 적절성이 높은 작품으로 선정했다.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흥미도가 높은 작품들에 대해서 적절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엄마를 부탁해'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 흥미도가 가장 높은 작품으로 선정했지만 교사들의 적절성 평가는 다른 6순위로 밀렸다. 이것으로 보아 교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학성이 높다고 평가된 소설과 시 작품을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가장 적절성을 낮게 평가한 5편의 작품은 '엘버트로스', '백자부', '가능성의 나무', '베니스의 상인',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등이다. 학생들의 경우는 '베니스의 상인', '가능성의 나무',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괴물', '토막' 등을 가장 적절성이 낮은 작품으로 선정했다. 적절성이 낮은 작품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괴물'의 경우에는 교사나 학생들 모두 흥미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했으나 적절성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사나 학생 모두 흥미도가 높은 작품에 대해 적절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괴물'의 경

우에는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적절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나 학생 모두 흥미도가 높은 작품을 적절성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적절성이 높게 평가된 작품들은 대체로 시가 장르나 소설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이 많고 수필이나 희곡·시나리오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과 외국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흥미도가 높은 ‘괴물’이나 ‘그들이 사는 세상’과 같은 작품들은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고 ‘규원가’, ‘정읍사’ 등과 같은 작품들은 적절성이 높게 평가된 것도 이 작품들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문학Ⅱ』의 흥미도, 난도, 적절성

〈표 13〉 『문학Ⅱ』 수록 작품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 조사 결과

번호	교사 반응				학생 반응			
	작품	흥미도	난도	적절성	작품	흥미도	난도	적절성
1	연탄 한 장	3.88	2.91	3.71	알	3.75	3.08	3.57
2	춘향가	3.84	3.29	3.93	이생규장전	3.74	3.02	3.54
3	호절	3.82	3.47	4.01	연탄 한 장	3.69	2.75	3.66
4	이생규장전	3.79	3.43	3.91	바리데기	3.61	2.94	3.4
5	바람의 화원	3.77	3	3.29	호절	3.6	2.99	3.64
6	바리데기	3.69	3.41	3.66	춘향가	3.6	2.9	3.57
7	발가벗은 아해들이	3.68	3.3	3.74	코끼리	3.59	2.76	3.56
8	무소의 뿔처럼	3.62	3.27	3.41	착한 사람 문성현	3.57	2.76	3.45
9	님이 오마 하거늘	3.62	3.2	3.69	시네마 천국	3.57	2.96	3.27
10	시네마 천국	3.58	2.9	3.21	광장	3.54	3.47	3.61
11	거울	3.55	3.94	3.76	토지	3.46	3.33	3.53
12	농무	3.55	3.55	4.00	거울	3.4	3.62	3.61
13	거울나무로부터	3.54	3.46	3.71	바람의 화원	3.4	2.93	3.2
14	토지	3.52	3.6	3.7	산돼지	3.4	3.4	3.38
15	착한 사람 문성현	3.36	3.01	3.24	별을 굶다	3.37	3.1	3.33
16	동동	3.36	3.71	3.83	화왕계	3.34	3.1	3.44
17	광장	3.34	4.13	3.87	농무	3.34	3.11	3.38
18	오이디푸스 왕	3.34	3.22	3.17	만세전	3.34	3.25	3.48
19	별을 굶다	3.33	3.25	3.33	단군신화	3.29	2.78	3.27
20	꽃땀불	3.28	3.25	3.52	꽃땀불	3.29	3.14	3.38
21	산유화	3.26	3.33	3.54	발가벗은 아해들이	3.26	3.25	3.32

번호	교사 반응				학생 반응			
	작품	흥미도	난도	적절성	작품	흥미도	난도	적절성
22	죄와 벌	3.24	3.64	3.31	무소의 뿔처럼	3.25	3.1	3.22
23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3.23	2.99	3.26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3.24	3.14	3.25
24	반은 절반을 뜻하면서	3.23	3.05	3.25	산유화	3.23	3.06	3.41
25	코끼리	3.21	2.93	3.1	겨울나무로부터	3.23	3.24	3.42
26	만세전	3.21	3.55	3.64	전화통화	3.16	2.81	3.19
27	알	3.19	3.16	3.22	오이디푸스 왕	3.14	2.96	3.01
28	화왕계	3.17	3.14	3.35	죄와 벌	3.1	3.19	3.09
29	청산은 내 뜻이오	3.17	3.02	3.42	공무도하가	3.05	3.3	3.45
30	강호에 ㄱ올이 드니	3.13	3	3.47	애국하는 노래	3.05	3.07	3.31
31	석류	3.12	3.08	3.09	능금	3	3.73	3.14
32	홍망이 유수하니	3.11	2.97	3.44	석류	3	2.86	2.96
33	공무도하가	3.1	2.98	3.57	원왕생가	2.95	3.33	3.38
34	단군신화	3.09	2.9	3.54	반은 절반을 뜻하면서	2.94	3.37	3.15
35	전화통화	3.09	2.87	3.05	님이 오마 하거늘	2.89	3.2	3.18
36	산돼지	3.08	3.26	3.16	몽금포타령	2.88	3.09	3.11
37	능금	3.04	3.27	3.05	동동	2.87	3.56	3.44
38	몽금포타령	2.74	2.79	2.8	홍망이 유수하니	2.85	3.43	3.31
39	원왕생가	2.72	3.43	3.11	강호에 ㄱ올이 드니	2.77	3.38	3.28
40	애국하는 노래	2.5	2.74	2.69	청산은 내 뜻이오	2.7	3.36	3.29

흥미도: 『문학Ⅱ』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교사들의 흥미도가 높은 상위 5편은 ‘연탄 한 장’, ‘춘향가’, ‘호질’, ‘이생규장전’, ‘바람의 화원’ 등이다. 학생들은 ‘알’, ‘이생규장전’, ‘연탄 한 장’, ‘바리데기’, ‘호질’ 등을 흥미도가 높은 작품으로 선정했다. ‘알’을 제외하고는 교사와 학생들의 흥미도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알’의 경우 학생들은 흥미도를 매우 높게 평가했으나 교사들은 낮게 평가했다. ‘알’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희곡 작품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교사들이 흥미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5편의 작품은 ‘애국하는 노래’, ‘원왕생가’, ‘몽금포 타령’, ‘능금’, ‘산돼지’ 등이다. 학생들의 경우는 ‘청산은 내 뜻이오’, ‘강호에 ㄱ올이 드니’, ‘홍망이 유수하니’, ‘동동’, ‘몽금포 타령’ 등이다. 고전 시가 장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산돼지’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흥미도 반응은 높은 편이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낮았다.

『문학Ⅱ』에 수록된 작품들의 흥미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도 대체로 비슷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 소설 작품에 대한 흥미도가 높고 고전 시가 작품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회곡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은 반면에 교사들의 선호도는 낮고, 고 시조나 고려가요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낮은 반면에 교사들의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 학생들의 장르 선호도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난도: 교사들이 난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5편의 작품은 ‘광장’, ‘거울’, ‘동동’, ‘죄와 벌’, ‘토지’ 등이었다. 학생들은 ‘능금’, ‘거울’, ‘동동’, ‘광장’, ‘홍망이 우수하니’ 등을 난도가 높은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난도가 높은 작품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능금’과 ‘홍망이 우수하니’의 경우에는 학생들은 난도를 높게 평가했지만 교사들은 비교적 낮게 평가했다.

교사들이 난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5편의 작품은 ‘애국하는 노래’, ‘몽금포 타령’, ‘전화통화’, ‘단군신화’, ‘시네마 천국’ 등이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연탄 한 장’, ‘착한 사람 문성현’, ‘코끼리’, ‘단군신화’, ‘전화통화’ 등을 난도가 낮은 작품으로 선정했다. 난도가 낮은 작품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문학Ⅱ』에 수록된 작품들의 경우 난도가 낮은 작품들 중에는 흥미도가 높은 작품도 있지만 흥미도가 매우 낮은 작품들도 있다. 흥미도가 낮으면서 난도도 낮은 작품들에는 고전 작품과 외국 작품들이 많았다.

교사와 학생들이 난도를 높게 평가한 작품들은 대체로 표현 형식 까다롭거나 낯선 어휘들이 많은 작품들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어휘나 표현이 낯설거나 내용이 복잡한 작품들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시가의 경우 학생들은 난도를 높게 평가했지만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고전시가 장르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와 난도의 관련성은 『문학Ⅰ』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문학Ⅱ』에서도 어느 정도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절성: 교사들이 적절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5편의 작품은 ‘호질’, ‘농무’, ‘춘향가’, ‘이생규장전’, ‘광장’ 등이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연탄 한 장’, ‘호질’, ‘거울’, ‘광장’, ‘알’ 등이다.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알’의 경우 학생들은 적절성인 높다고 평가했으나 교사들은 낮게 평가했다. ‘농무’ 또한 교사들은 높게 평가했지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교사들이 적절성을 가장 낮게 평가한 5편의 작품은 ‘애국하는 노래’, ‘몽금포 타령’, ‘전화통화’, ‘능금’, ‘석류’ 등이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석류’, ‘오이디푸스 왕’, ‘죄와 벌’, ‘몽금포 타령’, ‘능금’ 등이다. 적절성이 낮은 작품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차이는 거의 없다. 적절성이 낮은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대체로 외국 작품이나 주변 장르의 작품들인데 ‘능금’의 경우에는 장르의 특성보다는 작품의 난해성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작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사나 학생 모두 적절성이 높다고 평가한 작품들은 대체로 흥미도가 높은 작품들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적절성이 높다고 평가한 작품들은 대체로 문학적 평가가 높은 소설 작품들로 편중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흥미도와 적절성의 관련이 높은 반면에 난도와 적절성의 관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품과 배제되는 작품

자유 응답 질문을 통해서 ‘가장 흥미로운 작품’, ‘가장 어려운 작품’, ‘가장 재미없는 작품’을 두 편씩 선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흥미도 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어려웠지만 수업하면서 흥미로웠던 작품’에 대한 조사 결과는 흥미도 조사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

〈표 14〉 어려웠지만 수업하면서 흥미로웠던 작품

학생 반응				교사 반응			
문학 I	빈도수	문학 II	빈도수	문학 I	빈도수	문학 II	빈도수
피비우스의 띠	45	광장	45	피비우스의 띠	47	광장	43
치숙	31	거울	42	자전거 도둑	31	거울	34
홀린 사람	29	동동	35	홀린 사람	21	동동	18
울음이 타는 강	26	능금	27	변신	21	토지	16
종로 5가	22	토지	31	규원가	18	호질	15
알 수 없어요	21	만세전	25	울음이 타는 강	17	바리데기	15

‘어려웠지만 수업하면서 흥미로웠던 작품’으로 『문학 I』의 경우에는 교사들은 ‘피비우스의 띠’, ‘자전거 도둑’, ‘홀린 사람’, ‘변신’, ‘규원가’ 등을 들었고, 학생들은 ‘피비우스의 띠’, ‘치숙’, ‘홀린 사람’, ‘울음이 타는 강’, ‘종로 5가’ 등을 들었다. 『문학 II』의 경우에도 교사들은 ‘광장’, ‘거울’, ‘동동’, ‘토지’, ‘호질’ 등을 들었고, 학생들은 ‘광장’, ‘거울’, ‘동동’, ‘능금’, ‘토지’를 들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 난도가 높은 작품들, 그리고 문학적 평가가 높은 작품들이 수업을 통해서 흥미로운 작품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하면서 흥미로웠던 작품들은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작품들이다. 반면에 수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작품들도 있는데 미응답 숫자가 높은 작품들이 그것이다. 미응답 숫자가 가장 높은 작품들은 『문학 I』에서는 ‘엘버트로스’, ‘어진사람과 어리석은 자, 그리고 노비’, ‘소년 시절의 맛’, ‘밥’, ‘베니스의 상인’, ‘가능성의 나무’, ‘괴물’ 등, 『문학 II』에서는 ‘전화통화’, ‘코끼리’, ‘오 이디푸스 왕’, ‘석류’, ‘알’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응답 숫자가 가장 낮은 작품들은 『문학 I』에서는 ‘정읍사’, ‘자전거 도둑’, ‘알 수 없어요’, ‘울음이 타는 강’, ‘모래톱 이야기’, ‘삼포가는 길’ 등, 『문학 II』에서는 ‘동동’, ‘발가벗은 아해들이’, ‘단군신화’, ‘춘향가’, ‘호질’ 등이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교사들은 대체로 문학적 평가가 높은 작품이나 교과서의 정전으로 평가 받는 작품들은 빠짐없이 가르치는 반면에 외국 작품이나 최근 작품의 경우에는 비록 흥미도가 높더라도 수업 시간에는 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2009『문학』교과서 수록 작품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교사들의 반응 결과와 학생들의 반응 결과를 비교해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교사들은 문학사적 평가가 높은 작품이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을 중시한다. 문학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문학적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와 “문학적 소양을 쌓고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교과서에 실리기를 바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문학사에서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은 작품들”과 “청소년들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에 “대중가요나 만화와 같이 가볍고 재미있는 작품들”이나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대중소설이나 연애시들”을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중가요나 만화, 대중소설이나 연애시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대중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은 작품들”과 “청소년들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학생들보다 교사들의 작품 선호도가 훨씬 더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체험할 기회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교사들은 현대시나 고전시가와 같은 서정 장르를 선호하고 학생들은 현대소설과 희곡·시나리오 장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 선호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현대소설보다는 현대시를 선호하고 고전소설보다 고전시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희곡·시나리오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소설>희곡·시나리오>시>수필 순으로 서사 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호 장르와 비선호 장르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비해 교사들의 경우에는 선호 장르와 비선호 장르 간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었다. 교사들의 이러한 장르 선호도는 결국 실제 수업 시간의 작품 선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다루는 작품들 중에는 시나 소설이 많았고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지 않는 작품들 중에는 희곡이나 수필 장르가 많았다.

셋째,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작품에 흥미를 나타내었으며 어휘나 표현이 낯선 작품들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룬 작품, 표현 형식이 참신한 작품들을 흥미로워하는 반면에 어휘가 낯설거나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작품, 내용이 공감하기 어려운 작품들은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작품에 대한 흥미도와 난도 반응의 결과는 교사와 학생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들은 서정 장르를 선호하지만 교과서 작품에서는 소설 작품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다. 이는 결국 작품에 대한 흥미

도와 난도를 결정하는 데는 장르만이 아니라 개별 작품의 내용과 표현 형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도가 높은 작품으로는 ‘거울’, ‘울음이 타는 강’, ‘알 수 없어요’, ‘동동’ 같이 어휘가 낯설거나 상징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 시 작품이 많았다. 특히 교사들은 ‘광장’, ‘토지’, ‘죄와 벌’ 등과 같은 장편 소설도 난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흥미도가 높을 경우 난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교사들의 경우에는 흥미도 낮은 작품이 난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흥미도와 난도 간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넷째, 교사와 학생들은 흥미도가 높은 작품들을 교과서에 실을 만한 작품이라고 판단했다. 교사와 학생들은 흥미도가 높은 작품들에 대해서 적절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흥미도가 낮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적절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에 교사와 학생 모두 난도와 적절성의 관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도가 높은 작품이라도 ‘거울’이나 ‘광장’처럼 흥미도가 높을 경우에는 적절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능금’처럼 흥미도가 낮을 경우에는 적절성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시나 소설과 같은 전통적인 장르의 작품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에 외국 작품이나 희곡·시나리오, 수필 등과 같은 주변 장르에 속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과 달리 대체로 문학사적 평가가 높은 작품들에 대해 적절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교사들은 실제 수업에서 문학적 평가가 높은 작품들을 주로 가르치고 최근작이나 외국 작품은 잘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작품 중에는 외국 작품, 대중적인 작품, 최근작이나 비선호 장르의 작품들이 많았다. 반면에 수업에서 주로 가르치는 작품에는 오랫동안 교과서에 수록되어 왔던 작품, 문학사적 평가가 높은 작품들이 많았다.

2009 문학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학생 활동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작품들을 신도록 했다. 그 결과 대중적인 작품과 외국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문학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교실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인 장르의 작품들이 많았다. 교사들이 문학사적 평가가 높은 전통적인 작품을 선호하는 까닭은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 요인도 있지만 교사 자신의 문학적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교실 수업이 전통적인 작품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과정의 취지나 학생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학 교과서 수록 제재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작품 선정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흥미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작품 선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작품의 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교과서 작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난도보다는 흥미도를 더 중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흥미도가 높으면 난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작품 선정에서 난도뿐만 아니라 흥미도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들의 장르 선호도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특정한 장르로만 구성된 단원은 회피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고전 작품에 대한 선호도는 교사와 학생 모두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학Ⅱ』는 문학사 중심으로 편성되어 고전 작품 위주의 단원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문학Ⅱ』는 교사와 학생 모두로부터 기피될 가능성이 높다. 고전과 현대 장르를 적절히 통합하는 편성 방식, 그리고 시, 소설과 희곡·시나리오, 수필 장르들을 적절히 통합하는 편성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문학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 중에서 학생들의 흥미가 높은 작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뫼비우스의 띠’, ‘광장’, ‘변신’, ‘거울’, ‘홀린 사람’, ‘종로 5가’ 등과 같은 작품들은 문학사적 평가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도 높은 작품들이다. 대중적이고 쉬운 작품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문학성을 갖춘 어려운 작품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문학사적 평가가 높은 작품들 중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작품들을 널리 찾아 수록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학과 교육성을 고루 갖춘 작품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작품 목록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문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작품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장르 선호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실제 교과서에 수록된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보면 교사와 학생의 반응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작품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데는 장르의 선호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개별 작품의 내용과 표현 형식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사가 문학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수·학습 상황이 일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생들의 경우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교사들의 경우 장르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장르 편중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입시의 압력과 개인적 문학적 체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학생들의 문학적 감수성의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경험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향후 교과서 텍스트 선정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12종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작품별, 장르별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은 작품들의 텍스트 분석을 치밀하게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은 작품들의 텍스트 특성에 대한 연구도 향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석(2011). 개정 고등학교 서정 제재 연구. **청람어문교육**, 44, 429-454. 청람어문교육학회.
- 김용기(2012). 2009 개정 <문학> 교과서의 시조 수록 실태와 문학교육. **시조학논총**, 37, 71-105. 한국시조학회.
- 김창원(2003). 문학 교과서 개발에 대한 비판적 점검-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예로 들어-. **문학교육학**, 11, 43-81. 한국문학교육학회.
- 김창원(2006). 문학교육의 성격과 문학 교과서의 지향-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점검과 논의-. **국어교육학연구**, 27, 187-222. 국어교육학회.
- 김현수(2009). 문학 제재와 학습자의 흥미-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8, 377-404. 한국문학교육학회.
- 김현수(2012). 교과서 시 구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개정 교과서에 실린 한국 대표 시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2, 91-115.
- 박기범(2012).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185-219. 한국문학교육학회.
- 이순영(2011a). 텍스트 난도와 텍스트 선정에 관한 독자 요인-초·중·고등학교 독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시론-. **독서연구**, 26, 61-96. 한국독서학회.
- 이순영(2011b). 교사들의 텍스트 유형별 선호와 인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499-532. 국어교육학회.
- 이현진, 안찬원(2012). 국어 교과서의 정보 텍스트에 대한 인식 연구-초등학교 5, 6학년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0, 233-260. 한국국어교육학회.
- 진선희(2004). 시 텍스트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반응 양상 연구. **문학교육학**, 14, 395-437. 한국문학교육학회.

· 논문접수 : 2013-09-01/ 수정본접수 : 2013-09-29/ 게재승인 : 2013-10-16

ABSTRACT

Teachers' and Students' Responses to the Literary Texts of Literature Textbooks for Highschool Students

Joo-Hwan Kim

(Assistant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eachers' and students' responses to the literary texts of *Literature* textbooks based on 2009 revised curriculum. Survey data from 386 highschool teachers and 256 students were gathered for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eachers put strong emphasis on literary works which were highly evaluated in literary history and believed to be good for students' characters. Students preferred popular songs, comic, popular novels and loved poems relatively. Second, teachers showed a tendency on lyric genre such as modern poetry and classical poetry. Students preferred narrative genre in order of novel, play/scenario, poetry, and essay. Third, teachers and students were interested in modern and popular works. On the other hand, they seemed to feel difficulty in dealing with works which has unfamiliar words or expressions. Forth, teachers and students had a tendency to judge the appropriateness of texts based on the degree of interest. The relation of the degree of interest and the level of appropriateness as a text for a textbook was high in contrast of the degree of interest and the level of text difficulty. Fifth, teachers taught mainly texts with highly-evaluated literary works and did not teach latest or foreign works.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Literature textbooks. Firs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the level of text difficulty but also the degree of readers' interest in each text in selection of literary works for textbooks. Second, literature textbook should be include a variety of genres because the interest of a text by teachers and by students is not isomorphic. Finally, textbook developers should make constant effort to explore interesting literary works for students among the highly evaluated works.

Key Words : Literature textbook, textbook material evaluation, textbook assessment,
teacher's response to literary work, student's response to literature

